



보도시점 2023. 12. 21.(목) 배포 시 배포 2023. 12. 21.(목)

럼피스킨 전국 이동 제한 해제

- 위기 경보 '심각'에서 '관심'으로 하향 조정 -

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정황근, 이하 중수본)는 12월 21일부터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지역별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되었고, 럼피스킨 위기 경보를 '심각'에서 '관심' 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다고 밝혔다.

럼피스킨은 10월 19일 충남 서산지역에서 첫 발생이후 11월 20일 경북 예천을 마지막으로 총 107건이 발생하였으며,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66개 방역지역(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)은 가축·차량·사람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었다.

전국 모든 소의 백신접종을 완료(~11.10.)하고 11월 20일 이후 미발생함에 따라 11월 28일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요건*을 만족하는 강원 양구군의 방역지역 해제를 시작으로 12월 21일 인천 강화군의 방역지역이 해제되면서 전국 66개 방역지역이 모두 해제되었다.

* 방역지역 내 '모든 소 농장 백신접종 완료 후 1개월 경과' 및 '4주동안 미발생' → 방역지역 내 모든 소 농장 임상검사, 정밀검사 및 환경검사 → 이상없는 경우 해제

중수본은 전국 소 백신접종에 의한 방어능 형성, 매개곤충 월동, 11월 20일 이후 미발생, 전국 모든 방역지역 해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 발생 위험도는 낮다고 판단하고,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럼피스킨 위기 경보 단계를 '심각'에서 '관심'으로 하향 조정하였다.

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“관계기관, 지자체, 축산농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럼피스킨이 안정화 될 수 있었다”고 강조하며, “럼피스킨 재발방지를 위해 백신보강 접종, 위험도에 기반한 예찰 및 방역·방제, 농가 교육·홍보, 민간 협력 등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방역정책국	책임자	과 장	김정주 (044-201-2531)
	구제역방역과	담당자	사무관	서두석 (044-201-2535)

